

북스

Books

빈민가 아이들에 '삶의 기적' 주는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 꿈을 연주하다

체피 보르사치니 지음

극심한 빈부격차로 전 국민의 30% 이상이 빈민층인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35년간 '음악'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가난에 짓눌려 방황하던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음악은 사회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켰다.

최근 몇년 사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엘 시스테마'다. 짧은 나이에 세계적인 지휘자 반열에 오른 구스타프 두다멜(LA필하모니 상임지휘자)의 명성까지 더해져, 엘 시스테마는 문화가 가진 힘을 상징하는 '전범'이 됐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대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 정확한 명칭은 베네수엘라 국립 청소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을 뜻하며 보통 'System'이라는 뜻의 '엘 시스테마'로 불린다.

베네수엘라의 저널리스트이자 문화 관련 컨설턴트로 활동중인 체피 보르사치니가 쓴 '엘 시스테마, 꿈을 연주하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소개됐던 엘 시스테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진행한 다양한 인터뷰와 증언을 꼼꼼히 체크하고 엘 시스테마 참가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정리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전국 221개 음악학교와 500개 가량의 오케스트라에서 30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악을 배우고 있다.

저자는 꿈을 현실로 만든 엘 시스테마의 창립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와의 인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엘 시스테마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엘 시스테마의 정점인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활약상도 눈길을 끈다. '음악의 미래는 베네수엘라에 있다'고 극찬한 지휘자 사이먼 래틀은 이들과 말리의 교향곡 '2번'을 연주했고,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엘 시스테마 창립 30주년 기념 연주회의 지휘봉을 잡았다.

폭력과 가난의 골짜기를 벗어나 엘 시스테마 때문에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예는 책에 수없이 등장한다.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엘 시스테마 출신들의 활약이다. 엘 시스테마가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는 아이들에게 삶의 기적을 선물했다. <푸른숲 제공>

흔들림 없이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혜택을 아무 대가 없이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는 음악가들의 '아름다운 책임'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베를린 필하모니 최연소 단원으로 뽑힌 더블베이스 연주자 에릭슨 루이스나 구스타보 두다멜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마침 현재 광주극장에서 다큐멘터리 '기적의 오케스트라-엘 시스테마'가 상영 중이나 책을 읽고 난 후 꼭 한번 관람해 보길 바란다. 보고 듣지는 못하지만 엘 시스테마에서 '가슴으로'음악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진다. 반대로 영화로 먼저 엘 시스테마를 접했던 이라면 이 책을 집어들어도 좋을 듯하다.

<푸른숲·1만4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셜 네트워크 e혁명 프레이저·두타 공저



페이스북, 마이페이스, 트위터, 유튜브, 위키피디아, 싸이월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다. 일반인들은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사회에 뭔가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매튜 프레이저와 수미트라 두타가 쓴 '소셜 네트워크 e혁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웹 2.0' 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안내서다.

우선 저자들은 2000년대 중반 웹 2.0 시대가 열리

면서 나타난 소셜 네트워크 혁명은 1488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에 버금가는 대혁명이며 이러한 변화가 개인과 조직, 기업, 정치, 사회, 문화에서의 기존 사고와 행동 방식을 전부 뒤집어 놓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웹 1.0이 단지 정보를 올리고, 이메일을 보내고 책을 구입하는 '푸시(push)'형 매체였다면, 웹 2.0은 창조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에 있다고 덧붙인다.

저자들은 이런 변화가 개인과 기업, 소비자 및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이유를 다양한 예와 이론·역사학적 관점을 들어 분석하고 있다.

일부의 비판처럼 e혁명이 '온라인 전체주의'나 '아마추어리즘의 폭발'에 머물지 않고 '아이덴티티(정체성)' '지위' '권력'의 이동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설명한다.

'웹 2.0'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

또한 저자들은 경영자와 전문가들, 언론과 같이 이른바 '기존의 통제자'들이 '웹 2.0'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소셜 미디어의 역동적인 힘을 어떻게 활용할지 대신 이를 어떻게 억제하고 길들일 것인가에 우선 관심을 쏟았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좋은 것은 권력은 제도에서 네트워크로,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시스템으로, 관료주의에서 개인으로, 국경에서 가상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란 얘기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e세계'의 흐름을 감파하고 든든한 나침반으로 삼을만한 책이다. 원제는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 How online social networking will transform"이다.

<행간·1만79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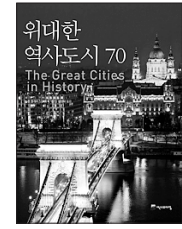
새책



▲소설로 만나는 근대 이야기=소설로 만나는 중세이야기'로 국내에 알려진 독일작가 귄터 벤텔레가 근대사의 주요 순간을 소설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역사서다. 장사꾼으로 변신한 농부, 괴이한 춤을 추는 수학 천재, 지구의 제작을 목격한 견습공, 7년 전쟁에 징집된 병사 등 당대를 살아갔던 민중의 눈으로 역사를 조망한다. <실림friends·1만3000원>



▲함★체=청소년 문학 분야에서 공모한 '제8회 사회절문학상' 대상을 받은 박지리씨의 작품이다. 난쟁이인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아 키가 작은 고등학교 남자가이 생동기 '함'과 '체'의 이야기이다. 여러모로 '난소공'을 연상케하지만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쌍둥이 형제의 '코믹무협 열혈성장 분투기'로 가볍게 읽히다가도 어느 순간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삶의 시선이 담겨있다. <사회절·1만500원>



▲위대한 역사도시 70=세계 최초의 도시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의 우루크, 인더스 문명의 중심지 모헨조다로,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 등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뤄낸 시대를 대표도시를 소개했다. 각 도시의 지리적 특성, 문화유산 등을 300장의 생생한 사진을 곁들여 설명한다. <역사의 아침·4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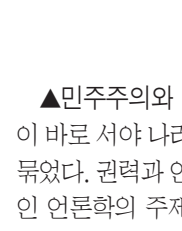
▲산사의 숲, 꽃잎으로 열리다=사찰생태연구가 김재일씨가 내는 108사찰 생태여행 시리즈의 제7권. 북한산 도선사, 안성 칠장사, 태백산 정암사, 가야산 해인사, 남해 보리암 등이 실렸다. 산사의 숲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동식물이 야기가 따스하게 펼쳐진다. 시리즈의 8권인 '산사의 숲, 계곡에 발 담그다'도 동시에 나왔다. <지성사·1만7000원>



▲삼부녀=지난 6월 일본에서 벌세한 전후(戰後) 1세대 작가 손창섭씨의 장편소설. 손씨가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 발표한 마지막 작품으로 1970년 '주간여성'에 연재된 세태소설이다. 원조 교제, 계약 가족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스토리로 인습적인 가족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 가족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예곡·1만2000원>



▲변호사 논쟁법=최훈 감원대 교수가 생활 속 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설명한 실전 논리학 교양서. 저자는 피고인의 편에 서서 검사와 판사를 설득하는 변호사들의 사례를 통해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 '근거 제시 및 확인의 원칙' '입증의 책임 및 권리 원칙' '논점 일탈 금지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 원칙이 세련된 대화 기술이며, 참여한 사람은 누구라도 거기에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절대게임이라고 주장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800원>



▲민주주의와 언론=김민환 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주제로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묶었다. 권력과 언론, 언론과 민중, 사실(fact)과 객관주의 등 전통적인 언론학의 주제와 함께 집단 지성 시대의 인터넷 문화 등 시사적 이슈도 다뤘다. <나남·1만6000원>

아름다운 몸소 체험한 세계 일주 배낭 여행기

배낭 하나 달랑 들고 홀로 50개국을 여행한 용감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오현숙씨'의 여행 이야기를 담은 '평생 꿈만 꿀까, 지금 떠날까-보통 아줌마의 세계일주 여행'가 출간됐다. 세계 일주 여행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이다. 이다.

세계 여행 초보자를 위한 기본 지식과 노하우를 담은 오씨의 책은 아줌마의 수다를 들으며 함께 여행을 하는 작각이 들 정도로 생생하고 맛깔스럽다.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책은 오씨가 전부 몸으로 겪고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신정보이자 낱것들이다. 오씨는 여행지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자신의 카페를 만들어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학세계사·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특허청 서비스 등록 제 41-0187289호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 * **출** : 연인, 친구, 가족 (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편식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 - 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토·일·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문의 0621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 각종 모임 및 행사 예약(500석 완비)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출장뷔페 전문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